

예기치 못한 만남

FERDINANDO FREGA · GILLETTENARRATIVE · GILLETTEVATICANO · 12/17

나는 소셜미디어에 특별히 열광한 적이 없었다.

예순한 살에, 나는 늘 그것을 더 젊은 사람들의 훈련장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것이 내 짐작이었다.

그러나 아내가 나를 가입하도록 떠밀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것이 gillettenarrative.com의 노출을 늘리고,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적어도 그것이 자기의 고결한 의도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런데 소셜 웹은 내 머릿속 틀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자신을 홍보하고 여기저기에 내 글 링크를 꽂는 대신, 나는 그저 사진 한 장과 개인 정보를 올렸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만큼만, 다른 사람인 척하지 않고.

그것은 늘 아버지가 정해 놓은 규칙이었다.

살아 계신 동안 그는 같은 원칙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먼저 사실, 그다음에 문학적 누아르.

내 웹사이트의 노출 순위와 관련해 며칠 전 거의 우연히 알아차린 몇 가지 일은, 나 혼자 관찰하고 읽고 있다는 것 말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도 지켜보고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올 수 있으리라고는.

아내는 늘 그렇듯 앞을 내다보며, 진짜인 것과 그저 가짜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러고는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질문을 했다.

“몇 달 전에 받은 혈액검사 결과를 봤어. 내가 보자고 우겨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안 적혀 있길래 병원에 전화해서 왜 그런지 물었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갔다.

“거기 보고 시스템은 세 자리까지만 표시한대. 당신 건 네 자리라서 안 나온 거래.”

그녀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같은 사람 이야기가 맞는지 물어봤다고 했다.

그들은 내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아내에 따르면, 여성 접수 담당자 중 한 명이 웃으며 덧붙였다.

“사모님, 남편분이 싫증 나시면 저희에게 보내 주세요.”

주목이라는 것은, 형벌이라기보다 거의 운명처럼, 언제나 말과 사진으로 자기 의도를 재는 비범한 여자들을 통해 찾아왔다.

첫 메시지는 그저 질문을 했다.

나는 웃고 넘어갔다.

그다음에는 WhatsApp 번호와 연락해 달라는 요청이 담긴 다른 메시지가 왔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메시지가 왔다.

“당신을 알고 싶어요. 밤새 당신 생각을 해요. 저는 미국인이고, 마흔여덟 살이고, 미혼이고, 당신을 원해요.”

나는 웃었다.

그러나 답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썼다.

“부인, 당신의 말은 저를 우쭐하게 하지만, 우리를 갈라놓는 이유가 셋 있습니다. 거리, 나이 차이,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앞의 두 장애물은 아마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내에 관해서는, 두 분이 가능한 합의를 보실 수 있도록 기꺼이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저를 짝수 날과 홀수 날로 나누실 수도 있겠지요.”

“다만 시간제 교대로까지 쪼개지는 마십시오. 저는 일정과 시계의 남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고, 일단 사람들이 저에게 익숙해지면 저를 놓아주기가 꽤 어려워집니다.”

몇 시간 뒤 아내가 웃으면서 내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어떤 미국 여자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알고 싶어 했다.

내 즉각적인 대답은 단순했다.

“둘 다 행복해지는 거라면 뭐든.”

그러고 나서 나는 덧붙였다.

“다만 나는 여자가 우는 걸 보는 게 싫다는 것만 기억해 줘. 나는 여자가 웃는 것만 보고 싶어.”

그녀는 돌아서서 한마디도 없이 방을 나갔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실제로 대화를 하려고 소셜미디어를 쓴 첫 번째 경우였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계속 나를 지켜봤다.

딸은 웃고 있었다.

그러다 아내가 갑자기 터뜨렸다.

“2년 전 당신 사진들을 봤는데, 당신은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나를 똑바로 노려봤다.

“대체 당신 진짜 누구야?”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나는 Ferdinando Frega, gillettenarrative.com의 창립자이자 소유자, Gillette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 중 하나야.”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식탁에 있는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자기는 결코 나를 다른 여자와 나눠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이미 누구의 허락도 없이 나를 나눌 능력이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았다.

Ferdinando